

광주시의회 예결위 구성 민주-국민의당 갈등

“다수당이 과반” vs “위원장 내준 대신 과반을”

4조5059억원 규모 추경안 심의 차질 우려

광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구성을 놓고 ‘갑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올해 광주시 추경안 심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3일 오전 본회의 개최 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예결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이은방 의장의 개의

선포와 김용집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만 마친 채 본회의는 10여 분만에 정회됐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을 놓고 원내 교섭단체인 두 당의 이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고,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 당별로 소속 의원 긴급회의를 열고 예결특위 구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간담회에 이어진 본회의도 예결위 구성을 이유로 개회하자마자 곧바로 정회했다.

이번 갈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결위 소속 의원의 양당 비율을 놓고 시작했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 위원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는 기본 조례 34조를 근거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은 12명, 국민의당은 9명, 민중연합당은 1명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는 대신 교섭위원 과반수, 즉 9명일 경우 5명, 11명일 경우 6명을 국민의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게 입장이다.

예결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추경 예산안 심의도 차질이 우려된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에 착수하고 오는 10일부터는 예결위 심의를 한다.

광주시는 4662억원이 증액된 4조5059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9월 문 연다

장애인 학대 예방·사후 관리

광주시는 3일 “장애인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이 오는 9월 문을 연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장애인 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장애인 인권 상담과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 조치 등이며 장애인 학대사례 판정위원

회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과 사후관리 등도 진행한다.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 등을 갖춰야 하며 조직은 기관장과 팀장 등 10여 명으로 꾸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옹호기관은 비영리 전문기관이 맡아 운영하며 이달 말까지 위탁기관을 선정 한 뒤 9월 문을 열기로 했다.

한편 광주지역 등록 장애인은 6만 86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국장급 6명 승진·전보

전남지역 첫 여성 부시장 광양 신현숙씨

전남도는 국장급 6명과 준국장급 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부시장이 탄생했다.

전남도는 행정자치부에서 6년간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은 고재영 관공과장을 자치행정국장에 승진·임명, 지방과 중 앙부처의 가교역할을 맡겼다.

또 기획행정 업무에 능통한 안상현 정책기획관을 보건복지국장으로 승진·발령했으며, 양근석 해양수산국장은 직급 승진했다.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전영재 비서실장을 순천부시장에 승진·발령했고, 신현숙 보건복지국장을 전남지역 여성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부시장에 선발해 광양부시장 업무를 맡겼다. 문동식 광양부시장은 동부지역본부장으로 자

리를 옮기게 된다. 준국장급 인사에서는 정책기획관에 주순선 고흥부군수를,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에 광주전남연구원 외관 중인 김영희 서기관을 각각 발령했다.

나주시시장에는 조재운 예산담당관을, 고흥부군수에는 소영호 농업정책과장을, 완도부군수에는 박현식 환경보전과장을 선발해 도와 시군 간 공조 강화에 중점을 뒀다.

예산담당관 후임에는 고영진 회계과장을 보임했다.

윤승중 자치행정국장과 이기환 동부지역본부장, 천재영 순천부시장, 장경문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등 4명은 공로 연수에 들어간다.

한편, 전남도는 과장급 이하 승진·전보 인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모터스포츠대회 심판원 양성

전남도 ‘KIC 오피셜 사업’추진

전남도가 모터스포츠대회 심판원을 양성한다.

전남도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매주 열리는 모터스포츠대회를 심판을 양성하는 ‘KIC 오피셜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셜은 경주장 안전과 원활한 경기 진행을 책임지는 심판원이다. 경기 때 신호제시 및 상황보고 임무를 수행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투입돼 사고처리·긴급 구조, 소방 활동 등을 담당한다.

전남도는 오는 8~9월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8월13일 심화교육, 9월30일 실습교육, 11월19일 종합시뮬레이션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홈페이지(www.koreacircuit.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남개발공사 061-288-4206.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25전쟁 당시 흥남항

오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막하는 ‘라이프 사진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로 화제에 오른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을 담은 사진을 비롯해 미국 사진작가 ‘라이프’의 사진 130여 점과 영상이 나온다. 흥남항 선박 모습. 연합뉴스

전남도 인구·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 만든다

인구정책팀·미래전략팀 신설

전기자동차·농식품가공팀도

전남도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든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인구정책팀·미래전략팀을 만들어 정책기획관실에 신설한다. 또 전기자동차팀은 창조산업과에, 농식

품가공팀은 농식품유통과에 각각 신설한다.

인구정책팀은 전남인구 190만명이 무너지는 등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컨트론타워 기능을 한다.

미래전략팀은 기존 미래 대비 테스크포스를 팀으로 승격할 것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한다.

이 두 팀이 신설되면 정책기획관실은 7개 팀으로 구성된다. 통상 3~5개 팀을 보유한 다른 시·과와 업무량 등 균형을 유지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

전기자동차팀은 영광 등에서 주도적으로 나선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행정 지원한다.

농식품가공팀 신설은 농식품 산업 지형의 중심이 생산에서 가공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산업협력팀과 산단지원팀을 산단산업지원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역경제과 과합용합팀은 창조산업과로 남기고 창조산업과의 조선산업팀, 화학철강팀은 지역경제과로 이동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개편안은 오는 6일 공포를 거쳐 본격 시행되지만, 직급별 인사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설 부서 업무 개시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가능성을 고려하면 또 조직 개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달 중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8월에 전남도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9월 도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시급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불가피하게 지방행정 조직도 바뀌게 돼 하반기에 또 한 번 개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신임 국장급 프로필



양근석 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전남 해양수산 업그레이드의 적임자라는 평가. ▲광주(57) ▲전남대 대학원 수산생물학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해양생물과장



고재영 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행정부와 전남도의 협력강화 및 가고 역할 수행의 적임자로 평가. ▲담양(55) ▲전남대 행정학과 ▲지방행정전문수원 행정지원과장, 행정부 통합플랫폼구축팀장



안상현 보건복지국장

대표적 기획통으로 J프로젝트 등 전남도 굵직한 현안을 기획, 지난 대선때 48건의 도정 핵심사업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 ▲순천(50) ▲한양대 행정학과 ▲정책기획관,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문동식 동부지역본부장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으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58) ▲광주대 법학과 ▲광양부시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F1대회조직위원회 본부장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모집 안내

-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 모집연령: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 캠프장소: 마닐라 알라방 리조트 전용 동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 멘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http://blog.daum.net/e-power